

'판도라의 상자' 신화

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.

여러분, '판도라의 상자'를 들어본 적 있나요? 아니면 이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? "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"라는 말은,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'판도라의 상자'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

'판도라'는 누구일까요? '판도라'는 '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'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. 신들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여자에게 많은 능력과 힘을 주어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어요. 판도라는 인류 최초의 여자이고, 동시에 세상에 악을 가져온 존재로도 알려져 있어요.

왜 신들은 판도라를 만들었을까요? 그 답을 알려면 아주 먼 과거로 가야 해요. 이 신화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, 바로 인간에게 몰래 '불'을 가져온 타이탄 프로메테우스입니다. 제우스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와 세상을 벌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판도라를 만들어 세상으로 보낼 때 상자도 함께 보냈어요. 판도라는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들었지만,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, 결국 상자를 열었고, 그 안에서 아픔, 미움, 질투 같은 나쁜 것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지게 됐어요.

'판도라의 상자'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건 좋지만, 때로는 '몰랐으면 좋았을 것'까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, 한 번 알게 된 것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. 마치 쏟아진 상자의 내용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.

오늘날 우리 세상도 이것과 비슷해요. 인간의 호기심 덕분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,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, 전쟁 무기 같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. 그래서, 우리가 배운 지식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, 그것을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.

그래도 우리에게 ‘희망’이 있어요. 왜냐하면, 판도라 상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‘희망’이었어요. 아무리 힘들고 나쁜 일이 생겨도,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

제가 이 신화를 선택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요. 첫째, 시대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한다는 점이에요. 둘째,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. 하지만, 판도라와 신들과는 다르게,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 혹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해요. 마지막으로, 저는 신화는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좀 더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.

여러분도 ‘판도라의 상자’를 떠올릴 때, 사람의 호기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, 알게된 지식의 책임과 나쁜일이 생겨도 우리는 다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기억해 주세요.

감사합니다.